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6. 3. 21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박용우 / 중령 김국현 (Tel. 044-200-2126)
<p>* 엠바고 : 3.21(월) 11:30(행사종료 이후) 보도 # '잠정 보도자료'로 현장 반영 해서 '수정배포' 될 수 있습니다.</p>			

'자주국방을 향한 창의적 기술개발로 튼튼한 우리 안보'

- 황 총리, 자주국방의 산실(産室), '국방과학연구소' 전격 방문
 -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(M-SAM) 시험 성공 등 그간의 노고 치하
 - 창의적 기술개발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더 큰 역할 당부
-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21(월) '국방과학연구소'(대전 유성 소재)를 방문하여 북한의 핵·미사일 등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.
- 최근 우리 軍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(M-SAM)을 이용해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한 바 있는데, 이러한 기술 개발의 중심에 바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.
- 황 총리는 국방과학연구소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, 국산무기 전시실과 실험실이 있는 연구동을 방문하여 무기 개발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- 황 총리는 “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자주국방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”며,
- “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주국방을 향한 '의지'와 '열정'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낸 연구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”하였다.

- “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튼튼한 국가 안보를 위한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- 한편, 황 총리는 취임 후 육·해·공군 각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안보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- 올해는 육군 3사단(16.2.3), 해군 서예류성룡함(16.2.26), 한미연합사 지휘소 CP 탱고(16.3.15)를 방문하였고,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.